

25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마태복음 1:18~2:23, 누가복음 1:26~38, 2:1~39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로 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마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이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잠에서 깬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 후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암송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그때에 천사가 밤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 일을 보자.”

목자들은 아기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부모에게 천사의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후에 또 멀리 동쪽 지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별이 멈추자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을 찾아 읽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마태복음 1:21).

.....

마태복음 1:21



아래의 빈칸을 채워 넣어 보세요. 그리고 괄호 안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 [] 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 [] [] [] 주시니라 (누가복음 2:11)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어요.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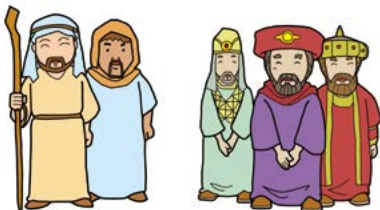
이사야 7:14

마가 5:2

이사야 9:6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현수는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번 숙제는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해야 한다. 꼭 검사할 거야.
안 해 온 사람은 혼난다.”


그런데 그날 친한 친구인 재진이 생일이어서 재미있게 놀다가 그만 숙제를
잊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약속을 어긴 현수에게 벌을
주며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반성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현수는 벌을 받으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들고 있는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현수는 지금 누가 가장 기다려질까요?

 선생님이 오시면 현수는 어떤 기분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어떤 기분
이었을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15)

예 화



내 방을 쓰세요

덕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였습니다.

덕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문을 두드리면서 방이 있느냐고 물으면 차갑게 “방 없어요 다른 데 가 보세요.”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덕구는 열심히 연습하였고,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먼 길을 가는 장면이 진행되는 동안 덕구는 떨리는 마음으로 여관의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제발 방을 빌려주세요.”

덕구는 큰 소리로 울먹이며 “방 없어요 다른 데 가 보세요.”라고 말하고는 문을 꽁 닫고 들어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실망하면서 다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사람들은 불쌍한 요셉과 마리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갑자기 덕구가 문을 확 열고 울먹이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마리아, 이리 오세요. 방은 없지만 내 방을 빌려 드릴게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방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빨리 오셔서 내 방을 쓰세요.”

‘어, 저런 대사는 없는데?’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덕구의 아름다운 마음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